

차별경험,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과 개인자부심, 집단자부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김 지 경

연세대학교심리학과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자부심,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just world belief), 성평등적 태도를 조사하여 남녀간에 이러한 변인들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더불어 차별경험이 이러한 변인들과 공통적으로 관계를 갖고있으리라 추정하여 개인적인 차별경험과 자신의 성집단이 받은 차별경험에 대한 지각을 조사하여 앞의 여러 변인들과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또 남녀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성고정관념의 내용을 특질(trait)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그러한 특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신의 성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결과를 보면 여성들은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있으며 여성일반은 자신보다 더 많이 차별받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성과 관련하여 성평등적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으나 성집단자부심은 더 낮았다. 남녀 모두에게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고정관념적인 특질지각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남녀 모두 개인/집단자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또 성평등적 의식을 가지고있는 사람일수록 세상이 공평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들의 차별경험과 성평등적 태도,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이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여대생들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추측하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하며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지니고 싶어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한다. 특히 그 집단이 자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집단일수록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평

가는 개인의 정체감과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민족, 국가, 출신지역, 학교 등은 그 범주의 크고 작음에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각 범주의 구성원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원한다 해도 이러한 범주를 떠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집단범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태어나면

서 여성 아니면 남성으로 구분지워져 평생을 살게 된다. 그러나 남녀의 삶의 질은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성은 오랫동안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성장과정에서부터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기 시작하여 동등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자격을 취득하여도 여자라는 이유로 직업을 갖는데서조차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동안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온 부분도 없지 않지만 21세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한국 여성은 유형무형의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사회전반과 여성자신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과정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며 그러한 진단을 위해 실증적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남녀가 자신의 성정체감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남녀의 성정체성을 주로 성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정진경, 1990). 그러나 남성과 여성 역시 광의의 개념으로는 집단범주에 속하며 따라서 집단이 갖는 사회적 지위와 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남성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집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게 하는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실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Hoffman & Hurst, 1990). 또한 이러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되며(정경아, 2001) 그러한 차별을 경험함으로써 여성들은 낮은 기대수준을 갖게 되고(Major 등, 1984) 실

제적인 불평등을 인내한다(Crosby, 1982; Major, 1993). 심지어는 자신이 받은 차별도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귀인한다(Ruggiero & Taylor, 1995, 1997).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여성이 자신의 성에 대해 갖게 되는 태도는 단순히 남녀의 성역할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가 여성에 대해 갖고있는 고정관념과 이에 근거한 차별 때문에 생겨난 실제적인 불평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과 관련된 태도에 있어 남녀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차별경험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차별경험의 정도와 여성들의 성집단자부심, 개인자부심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같은 변인간에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위에 언급된 여러 변인들에 있어 성차가 존재하는지, 또 남녀의 특질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을 하고있는지 살펴보았다.

성장과정에서의 성차별경험에 대한 지각은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개인적으로 성과 관련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차별을 많이 경험한 여성들은 자신을 포함한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성차별은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성차별의 경험은 차별의 이유가 다름아닌 자신의 성범주 때문에 경험한 부정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누적되면 자신의 성범주가 가치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경험과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간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부당한 차별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세상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인 자부심변인은 여성으로서

의 집단 자부심과 독립적인 변인이면서도 일정부분 이상 관계를 갖고 있는 변인으로서 개인 자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범주의 하나인 여성으로서의 자부심도 높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1. 여성과 남성의 특질에 대한 고정관념

이제까지 성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온 주제는 대부분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여성과 남성의 특질에 대한 고정관념은 주로 남성과 여성의 전반적인 성격특질을 대상으로 현재의 대학생들도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또 자신의 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특질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성집단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해볼 수 있다.

2. 남녀의 성집단자부심

집단자부심(collective self-esteem)이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사회집단의 소속성원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지각 및 그러한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자신의 정체감 형성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Luhtanen & Crocker, 1989). 멤버십 요인(membership collective self-esteem)은 개인이 집단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혹은 그 집단에서 얼마나 가치로운 성원이라고 느끼는가를 묻

는 문항이다. 사적 요인(private collective self-esteem)은 자신이 속한 집단사회집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며 자랑스럽게 느끼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공적 요인(public collective self-esteem)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마지막 정체적 요인(identity collective self-esteem)은 사회집단의 성원이 되는 것이 자신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를 측정한다.

성과 관련된 집단자부심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을 것이다. 다른 집단자부심과 마찬가지로 성과 관련된 집단자부심은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인식이 개인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부분의 여성은 크고 작은 차별의 경험을 갖고있고 또 간접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음을 알고있으며 크고 작은 차별을 경험하여 자신의 성과 관련한 집단자부심이 남성보다 낮을 것이다.

3. 남녀의 평등의식

성역할이나 남녀평등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김양희, 1991,2000 ; Campbell 등, 1997; Helmreich, 1981)에서 여성의 태도가 남성에게 비해 더 진보적, 평등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여성들은 차별경험을 직접, 간접적으로 해왔고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부정하고 평등지향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시한번 이러한 경향성을 확인해보고 이러한 평등의식과 관련있다

고 생각되는 개인자부심, 집단자부심,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간에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4. 차별경험: 개인과 집단의 차별경험에 대한 인식의 괴리현상 (personal/group discrimination discrepancy)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지각한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보면(Crosby, 1982,1985) 여성들은 자기 자신이 차별받은 경험보다는 다른 일반 여성들이 차별받은 정도가 더 심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보편적인 것으로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혼자 아이를 기르는 여성, 대학생, 이민자 등의 집단에서 일관되게 자신보다는 다른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것이다. 그러므로 표집의 대상이 상대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 한정되어(예를 들어 여대생과 같이) 자신의 차별경험을 적게 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자신의 경험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판단을 이용하는 반면 다른 일반여성들에 대한 판단에서는 흔히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인식 즉 여성들은 차별받는다는 고정관념을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자신의 자부심을 유지, 보호하려는 동기가 작용했을 수 있다. 즉 일반 여성들은 차별을 많이 받았지만 나는 차별받은 일이 거의 없다고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일 수 있다. 셋째, 자신이 통제력을 갖고있다는 일종의 환상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

것은 세상은 공평해서 누구나 자기가 받을만한 몫을 받는다는 신념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 밥길에 강간을 당한 여성을 보고 그 여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 혹은 원래 품행이 방정치 못한 여자였다고 귀인함으로써 그런 불행한 일이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즉 나아진 다른 여성들은 차별받을만한 상황이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나 자신은 어느 정도 차별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5. 차별경험,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개인자부심, 집단자부심, 성평등적 태도

본 연구에서는 차별경험에 대한 지각과 개인자부심, 집단자부심간에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왜냐하면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많으면 처음에는 부당함을 강하게 느끼겠지만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면 그러한 차별의 경험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낮추어 개인적으로 느끼는 자부심을 낮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 이유로 자신을 여성으로서 인식하고 평가하는 여성으로서의 집단자부심도 낮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차별의 경험과 평등의식간의 관계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차별을 많이 받고 그것이 내면화되어 개인자부심과 집단자부심이 다 낮은 여성들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도 성에 대한 불평등한 인식을 비판 없이 수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차별의 경험으로 인해 차별과 불평등의 부당함에 대해 강하게 인식함으로써 더 평등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는가의 문제는 개인의 행

동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자신이 살고있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보느냐 아니면 정의롭지 않다고 보느냐하는 데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신념은 개인의 통제감에 영향을 주어 개인이 갖게되는 성취동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즉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리라는 기대가 적기 때문에 애써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여성들이 차별경험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인식한 결과 세상이 공정하지 않으며 그러한 세상이 변화불가능한 것이라고 지각하게되면 여성들은 현상태에 안주하거나 남자들과의 경쟁이 아닌 여성들을 비교대상으로 삼고 만족을 추구할 수도 있다.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는 척도는 Rubin과 Peplau(1975)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는 Lerner(1965)가 '정의로운 세상 가설(just world hypothesis)'이라고 명명한 설명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핵심내용은 사람들은 자신이 응분 받을 몫을 받고 있다고 믿고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불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세상에 정의가 있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행을 당한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는 것은 개인적인 신념체계이며 인지 양식(cognitive style)이다. 이러한 신념은 경험을 통해서 획득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이나 부모의 신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신이 성공 경험을 많이 하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있는 세상이 정의롭고 살만한 곳이라고 지각할 것이다. 자기자신에 대해서 갖는 자부심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자부심이 높다는 것은 성공의 경험과 또 정당한 대우를 받고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그러한 자신의 위치가 우연히 획득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되는데 이것은 바로 세상사람들이 응분 자기가 받을 몫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자면 개인자부심이 높은 사람은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을 가능성이 많다.

개인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을 가능성이 많다. 또 개인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집단에 대해서도 높은 자부심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사실들을 일관되게 지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 범주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높은 자부심을 유지하려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은 이전의 한 연구(김지경, 1999)에 의해서도 지지된바 있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차별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기 어려울 것이다. 또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개인자부심과 성집단자부심이 낮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을 토대로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남성보다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관련된 집단자부심이 낮을 것이다
2. 여성보다 남성들의 평등의식이 낮을 것이다.
3. 여성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차별받은 것보다 여성일반이 차별받은 정도를 더 많다

- 고 느낄 것이다.
4. 차별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여성으로서의 집단자부심이 낮을 것이다.
 5. 차별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적을 것이다.
 6. 차별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더 평등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조사대상자

Y 대학교에서 심리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109명으로 이 가운데 남자가 65명, 여자가 45명이었다.

측정도구

1. 개인자부심 척도

Rosenberg(1965)의 개인자부심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두 10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4점 척도상에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10 문항에 대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자부심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2. 집단자부심 척도

김혜숙(1994)의 한국집단지부심척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무능력하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여성, 남성으로 구체적인 집단범주를 주어 자신의 성에 대해 느끼는 집단

자부심 정도를 측정하였다. 모두 14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척도 상에서 각 문항에 자신이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는지의 정도를 답하도록 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성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Rubin과 Peplau(1975)의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모두 20개의 문항으로 7점 척도상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세상은 정의로운 곳이며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대로 그 결과를 돌려받는다든 신념을 나타낸다. 이 척도가 국내에서 처음 사용된 척도이기 때문에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모두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의 신뢰도는 .7316이었으며 요인분석 결과 두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4. 남녀평등의식조사 척도 중 사회문화생활 척도

김양희(2000)가 개발한 한국형 남녀 평등의식 검사 가운데 사회문화생활척도의 요인에 해당하는 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남녀관계에서 여자는 너무 나서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문항에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9점까지 응답하게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낮을수록 성평등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여성과 남성의 특질평가

여성과 남성의 특질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Blair와 Banaji(1996)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여성과 남성의 특질 32개와 중성

표 1. 남녀별 개인자부심, 집단자부심,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성평등 의식

	성별	평균(표준편차)	t
집단자부심	남	68.38(10.94)	3.067**
	여	62.60(7.30)	
성평등의식	남	45.62(13.94)	2.595**
	여	38.62(13.42)	
개인자부심	남	30.54(4.36)	1.356
	여	29.40(4.16)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남	75.46(13.37)	1.057
	여	78.22(13.22)	

적이라고 판단되는 특질 10개를 포함시켰다.

6. 차별에 대한 지각

여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별받은 경험과 여성일반이 차별받은 경험에 대해서 묻는 문항과 차별경험이 주로 어떠한 내용의 것인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여성들의 의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을 묻는 문항에서도 가설대로 여성들이 더 평등지향적인 다시 말해 반편견적인 태도를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5.62(13.94) 대 38.62(13.42), $t(1,106)=2.595, p<.01$)

연구결과

1. 개인자부심, 집단자부심,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성평등 의식에서의 남녀차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자부심, 집단자부심,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성평등의식을 조사한 결과가 <표1>에 제시되었다.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감과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지각을 묻는 집단자부심문항에서 가설대로 여성의 성집단자부심이 남성들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68.38(10.94) 대 62.60(7.30), $t(1,104)= 3.067, p<.01$). 이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사회의 편견

2. 차별경험에 대한 지각

여학생들은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일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4.98점)

또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별받았다고 지각하는 것보다(평균 4.98) 여성일반이 차별받았다고 지각하는 것(평균 6.69)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였다($t(1,43)=4.625, p<.001$). 그러므로 연구의 가설대로 여성들은 자기자신보다는 다른 여성들이 차별을 더 많이 받고있다고 지각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Just World Belief)

남녀대학생 모두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으며(남자평균 3.77, 여자평균 3.91) 남녀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으리라 추측했던 개인차별경험요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257로 나타났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인자부심과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간에는 남녀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개인자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성 평등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또 남녀모두 자신의 성집단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개인자부심이 높다는 사실은 개인의 성공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경험은 세상이 어느 정도 공정하며 자신이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이러한 신념이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집단자부심이 높은 것

과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 것과의 연관성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에 대한 편견이 적고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타당하다.

4. 차별경험과 개인자부심, 집단자부심, 성평등적 태도,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남녀별로 나타낸 것이 <표2>와 <표3>이다

전반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상관관계 유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자부심과 집단자부심이 강할수록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하며 성에 대한 태도가 평등적일수록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just world belief)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여성일반에 대한 차별을 많이 지각할수록 성집단에 대한 집단자부심이 낮았으며 개인적인 차별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성일반이 경험하는 차별도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차별경험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자신의 성에 대해 갖는 성집

	개인자부심	성평등의식	정의로운세상에 대한 믿음	집단자부심	차별경험(개인)	차별경험(집단)
개인자부심						
성평등적 태도	-.131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343*	-.271**				
집단자부심	.187	-.439**	.341**			
차별경험(개인)	.435	.774	-.682	-.165		
차별경험(집단)	.209	-.061	-.135	.518	.066	

주)성평등의식은 점수가 낮을수록 평등의식이 높음을 나타냄

* p<.05 ** p<.01

표 3. 개인자부심, 성평등적 태도,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집단자부심, 차별경험간 상관관계(여자)

	개인자부심	성평등의식	정의로운세상에 대한 믿음	집단자부심	차별경험 (개인)	차별경험 (집단)
개인자부심						
성평등적 태도	-.146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326*	-.368*				
집단자부심	.154	-.165	.381**			
차별경험(개인)	.239	-.062	-.257	-.035		
차별경험(집단)	.234	.099	-.222	-.330*	.341*	

주)성평등의식은 점수가 낮을수록 평등의식이 높음을 나타냄

* p<.05 ** p<.01

단자부심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본 연구의 가정 즉 차별경험이 여성의 성집단자부심을 낮게 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짐작케 해주는 결과이다. 이에 반해 남성은 자신의 성집단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수록 더 평등지향적 태도를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남자일수록 더 편견이 적음을 짐작케 한다.

5. 남녀의 특질에 대한 지각과 평가

32개의 특질에 대해 각각의 특질이 얼마나 남자를 잘 대변한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여자를 잘 대변한다고 느끼는지 7점 척도상에서 물어본 결과를 남성, 여성응답자별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특질 가운데 평균 5점 이상인 특질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자가 생각하기에 남자를 잘 대변하는 특질로 나타난 것은, ‘지배적인’, ‘믿을만한’, ‘독립적인’, ‘결단력있는’, ‘용기있는’, ‘운동을 잘하는’, ‘강한’, ‘대담한’, ‘자신있는’ 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대표적인 특질은 ‘운동을 잘하

는’, ‘지배적인’, ‘충동적인’, ‘독립적인’ 이었다. 여자가 생각하기에 여자를 잘 대변하는 특질이라고 응답한 것은 ‘따뜻한’, ‘부드러운’, ‘감상적인’, ‘예민한’, ‘잔소리가 많은’, ‘이해심이 많은’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자의 특질은 ‘의존적인’, ‘변덕스러운’, ‘말이 많은’, ‘부끄러워하는’, ‘따뜻한’, ‘부드러운’, ‘감상적인’, ‘예민한’, ‘잔소리가 많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모두 자신의 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특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결과가 20여 년 전의 연구(Ruble, 1983)에서 여성 남성의 특질로 꼽힌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그동안 고정관념도 불식되거나 변화되었으리라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이다.

각각의 특질들이 얼마나 긍정적인가를 표시하게 한 결과에서도 대체로 자신의 성집단이 갖고 있는 특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남자들이 가장 긍정적인 특질로 평가한 것은 ‘자신있는’, ‘믿을만한’, ‘결단력있고 같

은 특질로서(평균 6.2) 이와 같은 특질은 남자를 대표하는 특질로 남자들이 선정한 것들이다. 반면 여자들은 ‘따뜻한’, ‘이해심 많은’과 같은 특질(평균 6.3)을 긍정적이라고 보고있는데 이것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여자의 대표적 특성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남녀 모두 자신의 성범주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녀간에 성과 관련된 집단자부심과 성평등적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남녀의 특질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또 여대생들이 자신이 경험한 차별의 경험정도와 자신이 아닌 일반 여성들이 경험한 차별에 대한 지각간에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차별경험에 대한 인식여부와 평등적 태도, 집단자부심,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간에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평등적 태도와 집단자부심에 있어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여자가 더 성평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성과 관련된 집단자부심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차별받은 것보다 여성일반이 차별받는 것이 많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차별지각에 있어서의 개인, 집단간 괴리현상(personal/group discrimination discrepancy)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 결과이다. 차별경험과 집단자부심,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보면 여성들은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가 여성일반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어느 정도 내재화시켜 자신의 성에 대한 자부심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차별경험과 성집단자부심,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마도 연구의 대상이 여대생에 국한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대생들은 그 특성상 여성들 가운데에서 비교적 차별의 경험이 많지 않고 심각한 정도의 차별을 느껴보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차별 경험의 결과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는 믿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전의 고정관념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정관념이 경험에 의해 변화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전수되는 내용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은 남녀모두 개인자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개인적인 성취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개인적인 자부심이 높고 이러한 성취경험은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자신이 받는다는 믿음을 강화시켜줄 것이므로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게 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위의 연구결과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대상이 갖는 특수성이 한계일 수 있다. 특히 여성가운데 성차별 경험을 많이 했거나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나 면접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

해 좀더 현실접근적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양희(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9권 제2호, 111-149.
- 김양희(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23-44.
- 김지경 박수애 이훈구(1999).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가 집단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3, 53-64.
- 김혜숙(1994).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8, 103-116.
- 정진경(1990). 한국성역할검사(KSRD).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82-92
- 정경아(2001). 차별의 심리적 기제로서의 성 고정관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69-85.
- Blair, I.V., & Banaji, M.R.(1996).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stereotype pr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26-1141.
- Campbell, B., Schellenberg, E.G., & Senn, C.Y.(1997). Evaluating measures of contemporary sexism.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21, 89-102.
- Crosby, F. J.(1982). *Relative Deprivation and Working Wom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osby, F. J.(1984). *The denial of personal discrimin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s*, 27, 371-386.
- Helmreich, R.L., Spence, J.T., & Wilhelm, J.A.(1981). A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Sex Roles*, 7, 1097-1108.
- Hoffman, C., & Hurst, N.(1990). Gender Stereotypes: Perception or ration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97-208.
- Lerner, M.J(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New York:Plenum.
- Major, B., McFarlin, D. B, Gagnon, D.(1984). Overworked and underpaid: On the nature of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 entitl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399-1412.
- Rubin, Z., & Peplau, L.A.(1975). Who believes in a just world? *Journal of Social Issues*, 31, 65-89.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le, D.N., & Ruble, T.L.(1982). Sex stereotypes. In A.G. Miller(Ed.), *In the eye of the beholder: Contemporary issues in stereotyping(pp.188-252)*. New York: Praeger.
- Ruggiero, K. M., & Taylor, D. M.(1995). Coping with Discrimination: How disadvantaged group members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826-838.
- Ruggiero, K. M., & Taylor, D. M.(1997). Why

minority group members perceive or do not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The role of self esteem and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373-389.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Group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Collective self-esteem, Just World Belief, Gender Egalitarianism

Ji-Kyoung Kim

Yonsei Univ.

The present study tried to confirm if there would be found significant relations among the perception of personal /group discrimination, collective self esteem , just world belief, and gender egalitarianism.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Korean students perceive the stereotypic gender differences. Results showed that first, personal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group discrimination which female respondents reported was greater than experience of personal discrimination. Second, female subject's collective self esteem was lower than male's. But female's gender egalitarianism was higher than male's. Third, Korean students showed stereotypic gender differences still. Fourth,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collective self-esteem and just world belief. Also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galitarianism and just world belief. But contrary to expectation, there were no important relations among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just world belief, and gender egalitarianism. Probably, this happens since university students haven't experienced severe sex-discrimination yet.